



국제 농업 정보(2021. 6.): 일본

일본 농업·농촌·식품 동향

1 2020년 농림업 센서스 결과¹⁾

■ 일본 농림수산성은 2021년 4월 27일, ‘2020년 농림업 센서스²⁾’ 결과를 발표함.

농림업 경영체 조사 결과

■ **[농림업 경영체]** 일본 전국의 농림업 경영체 수(2020년 2월 1일 기준)는 109만 2,000개로 5년 전 대비 31만 2,000개(22.2%) 감소하였으며, 이 중에서 농업경영체는 107만 6,000개로 5년 전 대비 21.9% 감소, 임업 경영체는 3만 4,000개로 5년 전 대비 61.1% 감소함.

■ **[경영 경지면적 규모별 농업경영체 수]** 농업경영체 중 개인 경영체는 103만 7,000개로 5년 전 대비 30만 3,000개(22.6%) 감소한 반면, 단체 경영체는 3만 8,000개(법인 경영체 3만 1,000)로 1,000개(2.8%)가 증가함.

- 5년 전 대비 홋카이도에서는 100ha 이상에서, 홋카이도를 제외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10ha 이상에서 농업경영체 수가 증가하였음.

■ **[경영 경지면적별 집적 비율]** 10ha 이상인 농업경영체가 55.3%를 차지하며, 5년 전 대비 7.7%p 증가함.

■ **[농산물 판매금액 규모별 농업경영체 수]** 5년 전 대비 판매금액이 3,000만 엔 이상인 농업경영체 수가 증가하였음.

1) 일본 농림수산성 “2020년農林業センサス結果の概要”(2021.4.27.)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https://www.maff.go.jp/j/press/tokei/census/210427.html>).

2) 일본의 농림업 생산구조, 취업구조 및 농산촌 등의 농림업을 둘러싼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는 동시에 일본의 농림행정 추진에 필요한 기초 자료 확보를 목표로, 전국의 모든 농림업 경영체 등을 조사 대상으로 5년마다 추진하는 통계조사임.



국제 농업 정보(2021. 6.): 일본

- **[농산물판매금액 1위 부문별 경영체 수]** 벼농사가 55.5%로 5년 전 대비 1.9%p 감소하였고, 과일류, 시설채소가 각각 5년 전 대비 0.9%p, 0.5%p 증가함.
- **[농산물 판매금액 1위 출하처별 농업경영체 수]** 농협이 64.3%이며, 다음으로는 농협 이외의 집·출하 단체가 9.7%, 소비자 직거래가 9.0%임.
- 5년 전 대비 농협이 1.9%p 하락, 농협 이외 집·출하 단체가 1.0%p, 소매업자가 0.5%p 상승하였음.
- **[청색신고를 이행하고 있는 농업경영체 수]** 농업경영체 중 35.5%인 38만 2,000개가 이행 중임.
- **[농업에 데이터를 활용하는 농업경영체 수]** 농업경영체의 17.0%인 18만 3,000개에서 데이터를 활용하여 농업을 추진 중임. 또한, 단체 경영체를 살펴보면 데이터를 활용하여 농업을 하는 경영체 수는 1만 8,000개로 단체 경영체의 45.6%를 차지함.
- **[주·부업별 농업경영체 수]** 개인 경영체의 주업형 경영체는 23만 1,000개로 5년 전 대비 11만 6,000개가 감소, 준주업형 경영체는 66만 4천 개로 12만 6천 개 감소하였음.
- **[개인 경영체 비중]** 개인 경영체 중 주업형 경영체는 22.3%, 준주업형 경영체는 13.7%, 부업형 경영체는 64.0%로 조사됨.
- **[기간적 농업종사자³⁾ 수]** 농업경영체 중 개인 경영체의 기간적 농업종사자는 136만 3,000명으로 5년 전 대비 39만 4,000명(22.4%) 감소함.
- 개인 경영체의 기간적 농업종사자 중 65세 이상의 비율은 69.6%로 5년 전 대비 4.7%p 상승하였음.
- **[보유 산림 면적 규모별 임업경영체 구성 비율]** 5~10ha가 24.1%, 다음으로 5ha 미만 22.8%, 10~20ha 20.7%로 조사됨. 5년 전 대비 10ha 이상의 비율이 높아짐.
- **[목재⁴⁾ 생산량 추이]** 임업경영체의 목재 생산량은 2,041만 4,000m³로 5년 전 대비 52만 6,000m³ (2.6%) 증가하였음.

3) 주요 업무로 자영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세대원을 의미함.

4) 연료재 및 표고버섯 원목은 제외함.



국제 농업 정보(2021. 6.): 일본

□ 농산촌지역 조사 결과

- **[모임 개최 횟수]** 조사 대상인 13만 8,000곳의 농업마을 중에서 과거 1년간 모임을 개최한 농업마을은 12만 9,000곳(농업마을 중 93.6%)으로 5년 전 대비 516곳(△0.4%) 감소하였음. 5년 전 대비 5회 이하로 진행한 곳은 증가, 6회 이상 진행한 곳은 감소하였음.
- **[모임 의제]** 최근 1년간 모임 의제로는 ‘환경 미화·자연환경 보전(88.8%)’, ‘농업마을 행사(축제 및 이벤트 등) 실시(87.1%)’가 높게 조사되었으며, ‘재생에너지 대응(3.6%)’, ‘정착 추진 대응(3.0%)’, ‘그린투어리즘(농촌관광) 대응(2.2%)’, ‘6차산업화 대응(1.2%)’은 낮게 조사됨.
- **[의제 대응]** 최근 1년 동안 의제 관련 활동을 조사한 결과, ‘환경미화·자연환경 보전(96.1%)’이 가장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농업마을 행사(축제 및 이벤트 등) 실시(95.2%)’, ‘농업마을 복지·후생(91.4%)’, ‘그린투어리즘(농촌관광) 대응(87.7%)’, ‘6차산업화 대응(86.7%)’, ‘정착 추진 대응(81.4%)’, ‘재생에너지 대응(66.4%)’ 순으로 조사됨.
- **[지역자원 보전⁵⁾ 현황]** 농지, 산림, 저수지 등 중에서, 지역에서 가장 많이 관리하고 있는 자원은 ‘농업용 용배수로(81.2%)’로 조사되었음. 또한, 5년 전 대비 모든 지역자원의 보전 활동을 시행하는 농촌마을 비율이 증가하였음.
 - **(도시주민 연계)** 도시주민과 연계하여 보전 활동을 시행하고 있는 비율은 ‘하천·수로’ 12.6%, ‘농업용 용배수로’ 10.1%, ‘농지’ 9.4%, ‘저수지·호수’ 8.9%, ‘산림’ 7.6%임. 모든 지역자원에 있어 5년 전 대비 도시주민 연계를 통한 보전을 추진하는 농촌마을 비율이 증가함.
 - **(NPO·학교·기업 연계)** NPO·학교·기업과 연계하여 보전 활동을 시행하고 있는 비율은 ‘농지’ 3.9%, ‘산림’ 3.1%, ‘하천·수로’ 2.2%, ‘농업용 배수로’ 1.7%, ‘저수지, 호수’ 1.6%로 모든 자원에 있어 5년 전 대비 연계를 통해 보전을 시행하는 농촌마을 비율이 증가하였음.
- **[임야 면적]** 임야 면적은 2,477만 ha로 국유지는 715만 ha(임야 면적의 28.9%), 사유지는 1,762만 ha(71.1%)이며, 전체 토지면적 중 임야 면적 비율은 66.4%임.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1.05.10., 17.).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5) 지역 농업인뿐만이 아닌, 지역주민 및 도시주민을 포함한 다양한 주체의 계획을 통해 농지·농업용수 등의 자원과 농촌환경 보전, 질적 향상을 위한 농지·물·환경 보전·향상 대책을 추진 중임.



국제 농업 정보(2021. 6.): 일본

2 미도리(녹색) 식량 시스템 전략 발표⁶⁾

- 일본 농림수산성은 2021년 5월 12일, 농업의 생산기반 강화와 환경부담 경감을 목표로 하는 ‘미도리 식량 시스템 전략(이하 미도리 전략)’을 최종 발표함.
 - 2050년까지 ① 농림수산업의 CO₂ 배출량 제로(zero emission) 실현, ② 유기농업을 전체 농지의 25%(100만 ha)로 확대, ③ 농약 사용량 50% 축소 등의 목표를 제시함.
- 미도리 전략은 농업인 감소 및 고령화에 의한 생산기반 취약화 문제를 해결하고 SDGs(지속 가능발전 목표) 및 환경문제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흐름에 따라 농업 생산력 향상과 지속가능성의 양립을 실현하고자 함.
 - △대규모 자연재해·지구온난화, △생산기반 약화, △커뮤니티 쇠퇴, △코로나19로 인한 생산·소비 변화 등을 고려한 농정을 추진함.
- 현재 EU의 농장에서 식탁으로(Farm to Fork) 전략 및 미국의 농업 이노베이션 아젠다(Agriculture Innovation Agenda) 등이 발표되었으며, 일본도 아시아 몬순 지역의 지속 가능한 식량 시스템 모델을 제시하여 국제 규칙 제정에 참여하고자 함.
 - 2021년 9월에 미국에서 개최될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등에서도 미도리 전략을 공개할 예정임.
- 미도리 전략은 △2050년까지 농림수산업의 CO₂ 배출량 제로(zero emission) 실현과 △2040년까지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살충제⁷⁾를 포함한 기존의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신규 농약 등 개발, △2050년까지 수입원료 및 화석연료를 원료로 한 화학비료 사용량을 30% 저감, △2050년까지 원예 시설에서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시설로 완전 이행 등을 목표로 함.
- 현재 전체 경지면적의 0.5%(2만 3,000ha) 수준인 유기농업을 △2040년까지 주요 품목에 대해 농업인 대다수가 활용 가능한 차세대 유기농업에 관한 기술 확립, △2050년까지 유기농 시장을 확대하고 유기농업 면적을 25%(100만 ha)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6) 일본 농림수산성 “みどりの食料システム戦略~食料・農林水産業の生産力向上と持続性の両立をイノベーションで実現~”(2021.5.12.), 일본 농업협동조합신문 “「みどり戦略」を決定 2050年有機農業100万haめざす -農水省”(2021.5.12.)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https://www.jacom.or.jp/bo/kankyo/seisaku/midori/attach/pdf/team1-152.pdf>, <https://www.jacom.or.jp/nousei/news/2021/05/210513-51217.php>).

7) 니코틴계 신경 자극성 살충제를 말함.



국제 농업 정보(2021. 6.): 일본

- 목표 실현에 있어서 혁신적인 기술개발도 과제이지만, 미도리 전략에서는 생산 현장의 의견을 기반으로 기술 공유와 지속적인 개량, 혁신적인 기술, 생산체계 개발을 조합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
- 최종 전략에서는 중간 정리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국민 이해 촉진’이 추가됨.
 - 농약사용에 대해서도 규제강화를 요구하는 의견이 있는 한편, 농업 생산성 저하로 인해 농업인이 충분한 소득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나옴.
 - 게놈 편집기술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는 한편, 코로나19 백신이 일본 국내 개발이 되지 않자 소비자 단체는 게놈 편집 및 유전자 조작에 대해 식량 확보를 위해 과학적인 검토를 원한다는 의견도 있었음.
 - 향후 개발되는 다양한 혁신적인 기술에 대해서도 과학적 식견에 근거한 합의가 형성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국민에게 정보 전달뿐만이 아닌 양방향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 또한, 전략 추진 기술별 공정표도 발표하여 구체적인 목표 달성 시기도 공개함.
 - △유기농업 확대 및 화학 농약 저감을 위한 병해충의 화상진단은 2022년, △제초로봇은 2024년, 병해충 내성을 높인 품종을 2026년 이후에 실용화할 계획임.

미도리 식량 시스템 전략 주요 내용

2050년 수치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수산업 CO₂ 제로 미션(zero emission) • 유기농업을 전체 농지의 25%(100만 ha)로 확대 • 농약 사용량 50% 감축 • 화학 비료 사용량 30% 감축 •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원예시설로 전면 이행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난화 대책을 포함한 농업의 환경 부하 저감 • 생산기반 약화를 수용한 생산성 향상
향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전체 방침, 2022년 이후 예산에 반영 •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등에서 국제 규율 제정에 참여 • 공정표, 보조금의 요건화를 통한 보급, 국민 이해 촉진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1.05.24.).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 농업 정보(2021. 6.): 일본

3 인구 분산·저밀도 사회 실현을 위한 농촌정책 구축⁸⁾

- 일본 농림수산성은 2021년 5월 19일, 새로운 농촌정책 방향 검토회와 장기적인 토지 이용 방향 검토회 합동회의에서 인구 분산과 지속적인 저밀도 사회 실현을 위한 새로운 농촌정책 구축안을 발표함.
 - 2020년 3월 발표된 식량·농업·농촌 기본계획에서 농촌정책의 종합적인 논의를 제시한 것을 기반으로 2020년 5월부터 논의를 시작함.
- 이번 정책에서는 인구 감소 및 코로나19 확산 후의 사회 변화를 기반으로 인구 분산과 지속적 저밀도 사회 실현을 제시하였음.
 - **(소득·고용 기회)** 농촌에서 소득·고용 확보를 하기 위해 관광 및 식품제조 등 농업 이외의 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을 창출하는 ‘농산어촌 이노베이션’ 추진을 제시함. 또한, 6차 산업화를 발전시켜 ‘반농반X’ 등 다양한 형태로 농업에 임하는 사람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 **(생활 유지)** 중산간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을 기능을 보완하는 농촌 지역조성 사업체(농촌 RMO⁹⁾) 육성을 제시함. 여러 마을이 함께 농지 보전부터 주민의 쇼핑, 육아 지원 등을 추진하고, 마을 영농조직 RMO화 검토에 대한 의견도 제기되었음.
 - **(토지 이용)** 인구감소에 따른 후계자 부족으로 유지가 어려워진 농지에 대한 대응책을 3단계^① 유기농업 및 방목 등 조방적으로 관리, ^② 야생동물 대책 완충대 및 비오톱(biotope) 등 영농을 재개하기 쉬운 형태로 관리, ^③ 계획적으로 임지화 추진)로 정리하여 제시하고, 토지 이용 계획을 지역주민이 만들어 행정에 제안하도록 하는 제도 검토도 제안함.
 - **(활력 창출)** 농촌의 활력을 일으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직원들의 지역조성 지도자인 ‘농촌 프로듀서’로서 양성 및 농촌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도시 주민 등의 관계 인구를 늘리는 방안도 내놓았음.

8) 일본 농림수산성 “人口分散と持続的低密度社会を実現するための新しい農村政策の構築”(2021.5.19.), 일본 농업신문 “事業創出し人材確保 農地荒廃防止へ粗放管理 農水省検討会が政策案”(2021.5.20.)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https://www.maff.go.jp/j/study/nouson_kentokai/farm-village_meeting.html, <https://www.agrinews.co.jp/p54295.html>).

9)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결성한 자치 조직. 과소화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나타난 지역에서는 RMO가 고립되기 쉬운 고령자 관찰, 방문, 쇼핑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음.



국제 농업 정보(2021. 6.): 일본

〈인구 분산과 지속적 저밀도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농촌정책 구축 개요〉

〈배경〉

- 코로나19 확산, 대도시 집중, 새로운 업무방식, 귀농귀촌, 고령화, 인구감소, 저출산, 농촌 가치 재평가, 인구 분산, 저밀도 사회 실현, SDGs, 미도리 식량 시스템 전략 등

〈일자리 정책: 농촌 소득과 고용 기회 확보〉

- 다양한 형태로 농업과 관련 있는 사람들이 충분한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농촌의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농산어촌발(發) 이노베이션' 추진

〈생활 정책: 중산간 지역 등 농촌에서 사람이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조건 정비〉

- 농촌 마을 공동활동 추진 및 복수 농촌 마을의 기능을 보완하는 농촌 지역조성 사업체(농촌 RMO) 육성 등
- 정보통신 기반 등 생활 인프라 정비 및 저수지 방재·감재 대책 추진

〈토지 이용 정책: 인구감소 사회에서 장기적인 토지 이용 방향〉

-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농지 확보를 전제로 유기농업 및 방목 등 지속 가능한 토지 이용과 이를 유지할 농지·농업 수리시설 정비

〈활력 조성: 농촌을 지탱하는 새로운 움직임 및 활력 창출〉

- 지역조성 인재 육성 및 네트워크 형성, 지자체의 광역적인 서포트 체제 구축
- 농업체험 등을 통한 농촌 팬 만들기 및 외부인재와 농촌 매칭 추진 등을 통한 농업 관련 관계 인구 창출·확대

→ **관련 부처, 지방 자치단체, 농업인과 연계·협동하여 '지역 정책 종합화'를 통해 추진**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1.05.31.)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